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二面

聯合軍約五十萬의 全部脫出은期待薄弱

佛海軍은、撤退部隊를掩護中

社說
第二次食糧計劃

海岸方面과의 補給路刻刻危殆
聯合軍撤退와 英將校라디오放送

上耳其陸軍 豫算成立

李王殿下 御榮轉
兒島次官謹話

諾威兩相런던에

又復가므랑 元帥自殺說

定例參議會

獨潛水艦活動開始

米國防費追加

駐屯軍問題로 蘇聯對리抗議

米國의英佛에對한 軍用機補給促進
中立法規定一部修正

官吏身分保障令撤廢 自由任用範圍擴大

人運河出入嚴禁

貴院皇軍慰問團 七月上旬에歸東

廣西補給路爆破
트럭約六十輛運行不能

白國銀行 獨人預金支拂停止

重慶重要建物徹底히紛碎 吏員六百名以上死傷

重慶의人心 極度로動搖

英特使任命?
英蘇交涉打開次

榮轉한兩氏略歷
鈴川氏
松澤氏

辭令

夕刊後市況

警報! 夏節엔 健康이危險

●豫防과治療에 百補丸을쓰라!

一、夏節이되면 肉體와精神이 疲勞하여 衰弱體는危險에 빠지게되고 健康體는虛弱하여집니다
二、肉體的疲勞 精神的疲勞를 防止하며健康한몸이되려면 抗病力을길러야됩니다
三、抗病力이라는것은 胃腸이 튼튼하여飮食物을잘消化시키고 또血液과精氣의循環이活潑하여 百病의侵入을擊退시키는힘입니다

●補藥의選擇

四、補藥中에는一時的若干의刺戟으로消化機能을衝動시키어서 一時的으로消化가잘되게하는藥이있스며 又는胃腸을刺戟하야虛弱을生케하는事有하니 이런藥은 도리어危險합니다 服藥을中止하면服藥前보담 오히려 症勢를惡化시킵니다
五、故로服藥하시려면 根本的으로 身體組織을뿌리채 휘둘추어病根을삿삿치더러버리고 四肢百體에 新活力을주며 五臟六腑에霹靂的革命作用을이르키는百補丸을쓰시요

●百補丸은임이

六、世界的强壯劑로判定되어 滿洲支那는勿論 歐米各國에서注文이至하며 朝野名士의 實驗證明品임으로 藥効의卓越함은 事實이實證합니다
七、此藥後藥을販服하는것은金錢의浪費요 病勢의助長이오니 服用者全部가證明하는百補丸을꼭쓰시요 ●期必코健康하여집니다

百補丸은 世界的强壯劑로判定!

百補丸

金계納無料進呈
東亞日報讀者優待券

자랑 百補丸 効力

調經胞胎 婦人百補丸 補血强壯

平和堂株式會社 内ルビ 百補丸株式會社
京城堅志町六一 電光六二三·六三二·三三〇番·振替京城二六五五番

ClibPDF - www.fastio.com

部分的驟雨에不過 큰비는可望없다

南朝鮮不雨로旱騷

【仁川】 [illegible] 예년보다 하지 못하고 지차 오 비는 [illegible] 지아니하다. 반가운비 지나처 이같은 [illegible]

岡野技師談 [illegible] 할수없는 일이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다소 비가 [illegible] 내릴것이다. [illegible]

胎動中의府營住宅地 個人에도分讓許諾

土地買收遲延으로九月初申請接受

分讓地는五個年年賦償還

[illegible] 府에서는 [illegible] 新町、錦町、上道 三個地域의 府營住宅地區 事業을 [illegible] 分讓規程 [illegible] 立案 [illegible] 保證人 [illegible] 五個年賦로 [illegible] 九月初 [illegible]

北朝鮮人四萬圓獻金 機關銃18臺獻納

[illegible] 六月四日午前 [illegible] 獻納 [illegible]

咸南一帶에甘雨!

移秧도順調、雨量洽足

道內에均霑、安邊七十五미리

[illegible]

▲咸興	四一미리四
▲元山	五八、七
▲安邊	七〇、五
▲文川	六四、〇
▲高原	一八、〇
▲永興	四九、〇
▲定平	一四、〇
▲洪原	三六、〇
▲北靑	四四、二
▲利原	四三、八
▲端川	四三、八
▲新興	五六、〇
▲三水	一七、五
▲甲山	一四、〇
▲長津	一四、〇

노다지鑛을再賣 十餘萬圓賠償請求

[illegible]

日滿支輸送圓滑코저 小荷物에受託制限

輸送量增加로制限을强化

[illegible] 交通局 [illegible] 五十瓩以內의것 [illegible] 七月一日이다。

永登浦經濟座談 巡廻經濟座談

[illegible]

十大家山水畫展 …展覽은今日까지

[illegible]

一年間煙草小賣 十八萬圓突破

[illegible]

煙草小賣人은 顧客에親切히

[illegible]

金一成一派의匪團 二水坪村落襲擊

匪團側連長以下六名負傷

[illegible]

집이무너지며 老婆가負傷

[illegible]

砂糖購入傳票制

傳票確保코저省令公布實施

[illegible]

再歸熱도傳染病

해마다七、八百名患者가發生

法令으로指定코防疫

[illegible]

暴飮과暴食에서 傳染病은發生

上流家庭에서만히發病

[illegible]

新人拳鬪大會 今夕七時半開幕

[illegible]

平醫專庭球部遠征

[illegible]

實業庭球리그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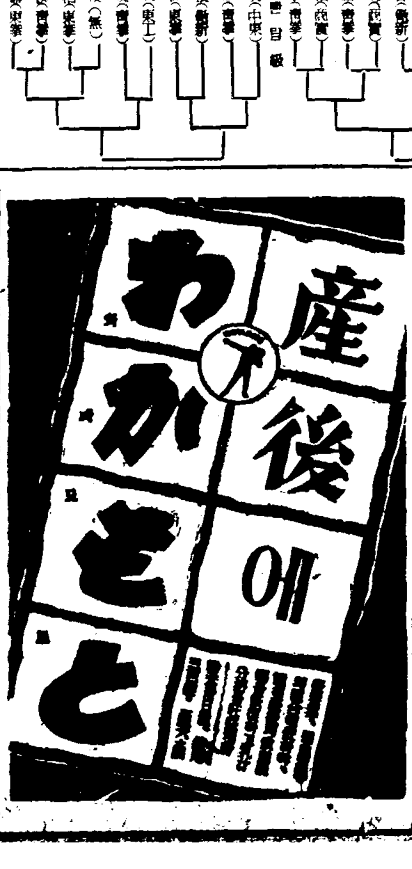
오늘의 글

美展特選作 續 上右 [illegible]氏作 [illegible] 上左 [illegible]氏作 [illegible] 下右 [illegible]氏作 [illegible] 下左 [illegible]氏作 石榴의아침

『新世紀』六月號 不遠 出來!

四·五月號注文讀者諸氏에게謝告함

新世紀社



「사모아」두지마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을위해서도。
쓰는이、파는이、만드는이의生活을위해서도。
그러케해주시면、모두、제대로잘되어갑니다。
品切도되지안읍니다。
パピリオ

戀愛의勝利者요 御聽明한科學者

對獨無條件降服下命한 白레오폴드三世

不幸이 …

(레오폴드三世)

擧國體制만은整備

于先戰敗하지안는다고自信

英戰時內閣陣容大觀 (下)

이든陸相

新案링그練習機

歐戰의本格化와 米國의經濟界

株式市場에警戒人氣

電擊侵入과各市場

國防教書의前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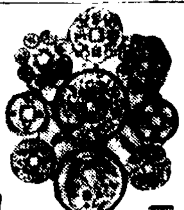
뉴욕의異變

重大統領의드릴마

私家關係別錢

「韓一朝一鮮一別一錢一考」 (四八)

柳子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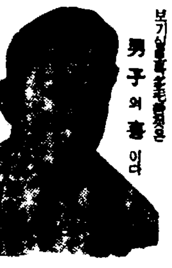
扇梅錢

摺扇錢

法律顧問

多毛한분에 깃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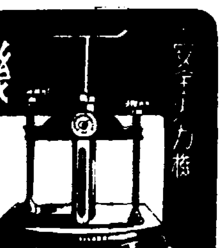
男女 毛深い方へ 脫毛劑ラベル



說明書無代進呈

機付燒ー ヤイタ

上以圓百二入收月 어엽어圓百二金資本



三國商工社 興亞工業社

大輪商會

自動車 自轉車 タイヤー

新發明品燃料經濟器具

燃力一錢以下の木炭で 手輕く美味しい 御飯の出來る 丸吉ムシカマド

(丸吉ムシカマド)

佐伯、井口兩博士推奬 國立燃料研究所

大募集

丸吉工業聯合研究所

京城府瑞麟町一三三番地

振替京城三一五九〇番

工場京釜線鳥致院

咸興 永生高等女學校

朱祥植

鎭海 洪潤德

李敬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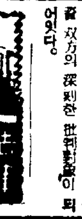
文川 優理美髮院

博士의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無代進呈

毛生藥 후미나인



發賣元 東京藥院

優美館

第一劇場

咸北建設景氣의豪勢
勞働者爭奪戰展開
勞賃조흔水産時期의迫頭로
土建業者悲鳴漸高

【淸津】 건설경기(建設景氣)의 호기만잡을 자랑하는 함북의 토목건축계는 이제 넘어갈사록 점차 전성기(全盛期)로 들어가고 잇는지라 시국하 재료난의 불자 부족의 선풍(旋風)도 용감하게 헤쳐가면서 나날이 비상한 건설을 붓이고 잇다한다。그런데 이 토건계에 또一대 폭풍이 [illegible] 으로직고만 닭아나고 잇으니 토로 붙어와서 그번화 건설사업에 따라 건계에서는 건설업자인 노동자의 대한 지장을 주고잇다는바 업자 여부족으로 업자는 비명(悲鳴)을 발하고 그대책에 부심중이라한다 그고 잇다는데 그중에서도 서로 뺏으려고 악덕 노동자 『뿌러커―』 정은 수산시기가 임박하엿으므로 지금까지 입어나서 상당한 노동자 까지 잇든 五만여명의 노동자가 노임 발전(爭奪戰)이 맹렬하게 전개되고 잇다한다 이 (勞賃)이 매단이 조흔수산방면 하야 개속할것이라고한다。

勞働者分散防止코저
勞賃引上을斷行
咸北建設에人的資源不足
業者對策에腐心中

【淸津】 함북의 토건계가 본격적 시기에 들어가게되여 五萬여명의 노동자도 부족을 초래하고 잇는이때 유지업의(船業?)와 중요토게 를 자랑하는 수산업(水産業)의 호화 어시기(漁期)에 들어오게 되엿는지라 토건노동자들이 임금(賃金)조흔 이수산방면으로 식고만 흘러가는 현상이므로 그들을 이것을 방지하기위하야 노임의 전폭적인상을 자진하여하게 그대책에 부심하고 잇다한다。함북토건공사의 가장중요한 각도시에서는 목하업자들이 사목시용하야 그 분산노동자의 방지책을 강구중이라하며 나진부(羅津府)토건업자들은 지난廿五日 경찰서에회합하야 여러가지상의를하고 좌기와여히 노임을 인상(勞賃引上)할 것을 발표하엿다 한다。

	舊賃金	新賃金
鳶職人夫	一、四〇錢	一、五〇錢
特殊人夫	一、〇〇	一、一〇
土方人夫	四、〇〇	五、〇〇
大工	四、三〇	四、五〇
左官	四、三〇	四、五〇
石工	四、五〇	五、〇〇
牛車夫	六、〇〇	七、〇〇
馬車夫	五、〇〇	六、〇〇

◇太公望◇ 【龍川】

陝川古刹인
烟湖寺改築

【陝川】 경남합천에잇는 해인사(海印寺)의 말사(末寺)인 연호사(烟湖寺)는 상당한 년월을 경과하고 기타 고찰(古刹)로써 풍우상세(風雨霜洗)에 사욕(朽損?)이 퇴락(頹落)되어 실로 전유(?)(顧念?)의 동정금(同情金)을 모집(募集)하고자 이번 본산 주지(本山住持)인 해인사 주지 이회광(?)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 기공하게 되엇다는데 총공비 二千여원은 본산에서 부담하고 지방유지(地方有志)들의 동정금(同情金)을 모집 하엿다한다。

消火에殉職한
消防部長葬儀盛大

【咸鏡】 지난 十七일 함흥에서 [illegible]

세멘鐵材大不足으로
淸津土木工事不振
百數十萬圓의諸工事停滯

【淸津】 청진부 금년도 토목공사 시행으로서 백수十만여원이 비는 신청부、위시부、도시계획 관련 미증유의 거대한 예산이 공사기간은 서위다 금년도 내로 완성하게되여잇으나 그러나 불자난(物資難)으로 그대부분이 자못부진상태에 잇다한다 특히 세멘트와 철재(鐵材)는 부당국자 신도 전연구할수없는 상태에 빠저서 도저히 예정대로 시행할수는 없다는바 부당국은 불론이요 일반부민들도 매우 우려하고 잇다 한다。

水戰끗에告訴
龍洲面高山里에서

【陝川】 경남 합천에서는 오지용남시지회에 노력하다가 순직(殉職)한 함흥경방단 제二소방부장 (咸興警防團第二消防部長) 사전신지조(寺田信之助)(三二)씨의 경방단장(警防團葬)은 지난廿八일오전十시반 함흥공설운동장에서 경방단원을 위시 경찰관、관공리 기타 다수 유지가 참렬하야 [illegible]

【陝川】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高品里) 사는 심태인(沈泰仁)(三二)씨와 동리 김영호(金永浩)(二七)씨의 장자 경식(長子景植)(一五)와 모자리관계로 수전문제로 경찰에 고소(告訴)를 하엿다고한다。

龍伏御戲競技大會
盛況裡에終幕

【龍伏】 안주군 운곡면용복서민(安州民)주최、본보안주지국(本報安州支局)후원으로 개최된 전조선각희대회(全朝鮮脚戲大會)는 二十八일로써 대성황으로 끝을마치엇는데 금년은 특히 개천(价川) 평원을 비롯하여 순천(順川) 평원(平原)등 각지방으로부터 다수한 역사(力士)가 참집하여 일대평형전을 일으켜 수만관중의 열광적흥미를 느끼고 오후七시반경 만히 종막(終幕)하엿는데 각부의 입상자는 다음과갓다한다。

▲壯年部 一等 李某(?)(安州) 二等 [illegible]

砂糖配給에傳票制
去廿八日부터春川에서實施

【春川】 춘천에는 요지음사탕(砂糖)기근이 가장심하야 춘천부에는 상수가 없는데 이것은 업자들이 자기집에 불건을 참상하기 때문이라는 경찰에서 경성으로부터 들여오는 사탕의 취급이잇는것도 사정을 모르는 립에게만 파는경향이 잇으므로 이런폐해를 근절하며 배급에원활을 기하기위하야 지난 二十八일부터 춘천경찰서에서 배급에전표제(傳票制)를 실시하고 잇는데 이후부터는 사탕에 구매하자면 해소시키며 실답이 아닐 점이 되지안토록하야 특별히 수속을 해야한다 정의에는 한근이상은 더배급치안 흐리고하며 전표는 춘천경찰서경제계에서발행한다고한다。

警官이라詐稱하고
暴行까지敢行
神人共怒할僞警官

【開城】 생활이 가난하야 뜻을 오르는 손님이 만저하여 외전학교 지하 것은 안보엿으나 은 그결과가 어 [illegible] 개성서(開城署)로 새로 정이한 경관이라 사칭코 허가없이 술을 파는것은 위업이라고 그렇지아니 겠다하고 내어 [illegible] 그는본적과 현주소를 경성부금정(京城府錦町)四四一번지 이상만(李三萬)(三七)이라고하는 부랑자로 지난十七일밤 부내남산정(南山町)에서 뒷술을파는 김씨(金氏)의집에 경성서 [illegible]

國防獻金等으로
五萬五千圓寄附
池昌宣、池正宣兄弟가

【光州】 광주부내에서 청년실업가로서 명망이 놉흔 지씨(池氏)형제는 五萬五千원의 거금을 국방헌금 기타사회사업에 기부하엿다는사실=광주부명치정(光州府明治町)五정목에 살고잇는 청년실업가 지창선(池昌宣)씨와 그아우 도회의원지정선(池正宣)씨는 비상시국에대한 선각 자로서의 충성을다하기위하야 지난二十七일에는 현금 五萬五千원의거액으로 국방헌금 기타사회사업에 자진기부하엿으므로 당국자는물론 一반민간에서도 지형제의 장거를 치하한다는바그 형제는 종래에도 각종사회사업에 도 만은금액을 희사기부하여 나왓으며 그어버이 지응현(池應鉉)씨는

陝川에商務稧組織
稧員七十餘名

【陝川】 경남합천에서는 지난二十일 오전十一시경 합천공립보통학교상사(商務會上)에서 상무사(商務社)의 주최로 계원(稧員)의호상진목(互相親睦)을목적한 상무계(商務稧)를 조직(組織)한바 출석원이 七十여명에달하고기본금(基本金)은 五백여원의 적립(積立)을 보게되엿고 역원(役員)을다음과 같이선거한후

婦女子들에
共同托兒所擴充
屋外勞働을奬勵
江原當局의勞力飢饉對策

【春川】 부녀자(婦女子)들의옥외(屋外)노동을 적극적으로장려와함께 농번기에 농촌의노동력조정에원활을 기하기위하야 금반강원도에서는 『모』심을때도 닥처오며 농촌에잇어서는 각공사장 또는 각공장으로 갓으므로이 부족된 노동력을 부녀자들의옥외노동에의하야 보충할계획인데이 계획은 종래도 장려해왓으나 금년에는 더한층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한편각부락마다 공동탁아소 (共同托兒所)등에 시설을더한층확충하야 한다

群山高女聯盟結成

【群山】 국민정신총동원 군산공립고등여학교(群山公立高等女學校)연맹(聯盟班)결성식 봉고는 지난二十八일 오전九시반부터 내빈(來賓)지전부윤(池田府尹)청수 내부과장이하 사회계 원외며동교 교장(椎名校長)이하 직원생도 四百二十五명참집하야 궁성요배후 국가봉창 국기사대전에서 엄숙히집행하고 동十시경 해산하엿다한다

第二次三年計劃으로
十三個道路를改修
總工事費는一百七十萬圓
咸南當局에서計劃中

【咸興】 함남도 당국에서는 관내의 지방도로、읍면도로(地方道路邑面道路)의 정비를 계획하야 지난 소화十三년부터 三개년계획 하에 개수공사를 행하고잇엇는데 이번 다시 명년부터 제二차 三개년계획하에 미개수 지방도로、읍면도로 十三개선을 개수할계획을 수립하고 잇어 사못 주목되는바이다。

함남도 당국의 계획하는바에의하면 현재 이미 개수가완성한주요노선과 지방、읍면 도로회에 개수치안는지방、읍면 도로 十三개선을 소화十六년부터 十八년에 이르는 三개년간 공사비 百七十萬圓으로 개수할 모양인바 산업적 방면으로 보아서도 중요한 바임으로 목하 구체적 계획을 수립중이라한다。

慶州料亭은閑散

【慶州】 유흥가의 활기는 천정을 찌를듯이 경기가조터니 四월一일부터 유흥에관한一체의세금이 오로게된이후 다소정지적 불경기를 의미함인지 그닭도그러치리 세금 계에서발행한다고한다

安岳高等女學校
開校式盛大擧行

【安岳】 지난 三월三十일부로 설립인가(設立認可)된 안악고등여학교(安岳高女校)는 창전(倉田)교장을맛이하야 개교(開校)준비를 급급히 진행한바 지난 四월十六일부터 동十八일까지 三일간에 입학시험(入學試驗)을 마추고 수험자 百四十三명중 합격자 五十五명을 선발하야 지난 四월二十七일에 가교사(假校舍)인 안악공회당(公會堂)에서 입학식을 거행하고 동三十一일부터 수업(授業)을 개시하여 오든바 지난二十八일에 금촌(金村)본도지사(道知事)이하 래빈 하부형 다수참석리에 개교식(開校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다고 한다。

慶州火災民救助金
四百十圓을分給
郡當局에서直接으로

【慶州】 경주군강서면사방(江西面士方)의 화재는 경주화재사상 미증유의대화로서 一차본지에 보도한바갈거니와 이재해민의 구조기금이 본도로부터 경주군에 전달되어왓으므로 전답불四百十원을 후대고 해당군직원이 시찰을 결정하야 생업부국에 배진 하여 분배키로 되엇다한다。

南浦洋灰組合團結

【鎭南浦】 전시하 통제경제의 국책에 순응하여 진남포부내의 세멘트공업자일동은 세멘트공업조합을 결성하여 생업보국에 매진 하여오든바 동업자중에는 일찬(日

火災의復舊資材는
公定價로全部配給
柳本咸興府尹의歸任談

【咸興】 미증유의대화(大火)의 뒤에 재지의 복구에 필요한 자재(資材)의 특별배급(特別配給)을 총독부에 요청코저 승영하얏든 상공과장(增永咸商工課長)과 함께 지난 二十八일 상경(上京)하엿든 유본부윤(柳本府尹)은 지난 十八일야에 돌아왓는데 총독부에 피서한 내용에대해 다음과같이 말하엿다。

특히 세멘트와 못(釘)은 구하기곤란하나 복구하고 당국에서도 동정하야 우리의 요망대로 배급하여 주기로 결정이엿다。

다만 공정가격(公定價格)으로 배급을 받게된것은 무엇보담도 기쁜일이다。 그러고 재해지의 구획정리(區劃整理)는 여러가지 사정도고려하야 어떠한 실행여하는 다만 금속통제(金屬統制) 관계로 사정통이 곤란시되는데 함흥부의 부흥비총액 百十萬원은 부당국에서 대부분연불(延拂)하여야 하겟다。

그야 어떠는 자재배급문제가해 지금형편으로부터 시가지의 방침을 위해 적당한 대책을 세울터이 다」운운

火災民救濟義捐金
三萬六千圓突破
各地에서繼續殺到中

【咸興】 시가의 중심지인 봉시에 상가(商街)의중심지대를 휩쓴 미증유의 대화재에 대한 각 방면의 동정은 날이갈사록 치열 (熾烈)하야잇는데 지난二十八 일오후까지 함흥부에세도한 각방면의 재민구제의연금(火災民救濟 捐金)은 三萬五千八百원의 거액 에달하는바 쇄도하는 일반의 눈 물겨운동정과 재민들은 함흥부 민일동이 감격하여 마지안는바잇 다。

開城敎育會主催의
大島博士講演會

【開城】 개성교육회(開城敎育會)에 서는 구주제대(九州帝大) 대도(大島)이학박 사(理學博士)는 금번 입보하술 진흥회 위원으로 래개 하얏든바 이를기회로 부교육회(敎育會)에 서는 지난廿九일 동박사를 초빙 하야 부내만월소학교 (滿月小學 校)강당에서 『자연연구와 마음 의수양』이라는 제목으로 오후三 시서부 강연회를 열엇섯는바 대 성황을 이루엇다한다。

金浦地主懇談會에서
金浦水組廢止決定
그代身에富平水組延長키로

【金浦】 오랫동안 중단된채 그존 폐문제와 부평수리조합 (富平水 利組合)에서 여장인수 (延長引 水)여하에대하야 전군민의 주목 을 끌고잇는 김포수리조합(金浦 水利組合)문제는 그동안 전군수 (全郡守)의 적극적활약과 군민 들의 요망에의하야 경성서대도를 표시하기위한 김포수리조합 지주 간담회(金浦水利組合地主懇談會) 를 지난 二十七일 김포청회의실 에서전군주의 사회하에 개최하엿 다는바먼저 전군수의 김포수리조 합문제에대하야 그동안 취해왓든 파보고가 잇으다음 현양수요국체 인미곡증산(米穀增産)계획에 비 추어보나 작년도한해로인해서 입 은막대한피해를 생각해 보드래도 김포수리조합의 부활(復活)을 일 대(一大)로써 신급한 문제이고 상세 설명하고 그심의에 잇어서 두가 지 방법 一반지주에 제시(提示)하여 세밀한 검토를 가하 엿다는데 첫재로 김포 수리조 합을 그대로 부활하에는 양수 기(揚水機)를 구입(購入)해 야 된은 부당을이고 상당상식의 부채(負債)관계 기타로 인하여 마대한 비용과 자본을 필요로 하 느바 작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보 면 당초예정인 봉리면적 四千정 보를 봉리시키리라기는 그정에 따라 기 힘들은 一천명이상이 되야 부평수리조 합관계 에 [illegible]

남애(眞損額)으로보다 설비자금 관계로보아 가장 이상적인봉시에 현재부평수리조합에서 가지고잇 는 양수기가능력 四천여정보의몰 을 몰이고도 二천여정보에대하야 넉넉하다양수할수잇는 능력을 가 지고잇으나 김포수리조합의 시수 원지를 감용들에서 언어야할 형 편이면서 학로양수기를 설치하할 요가없이 아조부평수리조합에 마 끼여 김포지방까지 연장시킬할 나고하는게 가장유리한 방책이 라하여 어기에 김포수리조합은 아조폐지하여 버리고 부평수리조 합에서 연장하는데 의견이 一치되 엿으므로 그방침에 본부당국(本 府當局)에 대표를보내여 적극적 으로 운동하라는바 위선지정 위원으로 당회의 여섯명을 선 정하엿섯다。 은 부평수리조합의 연장선으로근 근二천여정보의 봉리면적을 가지 고 수로(水路)연장五十리에 궁 하는대사업이 실현될날도 머지안 케되엿다고한다。 그런데 二十九일 상경하여 총독 부당국에 진정 아기로된 대표위원 은 당회의 六씨인데 매우 의기양 양하여 자신잇는 표정들을 엿볼 수잇엇다。

代表委員氏名
金在成、金昌□、尹秉□、金顯欽、□□□、李□□

高地帶三郡에
甘雨가沛然
農民들은愁眉僅開

【咸興】 함남고지대인 (高地帶)三郡에서는 이지음 파종기(播種)관계 기타로 인하여 비를 맛이하야 비를기다리고 잇섯는데 지난二十六일부터 다 음二十七일저녁까지 가지에 골고 루 비가 내이어 일반농민이 수 미(愁眉)를피계되엿다고한다。 지난二十八일 함남도청에 들어 온보고에 의하면 고지대중 풍산 (豊山)지방은 七미리 갑산(甲 山)은 六미리 삼수(三水)는十 미리 파종지인만큼 일반농민이자 못 기뻐하고잇다고한다。

無許可建築에
嚴罰主義로
春川當局의態度强硬

【春川】 시가지계획과 아울러 날이 그발전을보이고잇는 춘천은 요사이 더한층 건축에허가없이 함부로 가옥을건축하야 시가에미 관상도 조치안을뿐더러 도로에방 해도적지안흔데 금년봄부터 무허 가건축으로 처벌을받은자가 八十 명이상이라고한다 그런데 앞으로 는 이런자를처벌되는대로 종래처 럼 벌금형에만처하지안코 단연히 벌금형에 처하고 또건축한물건을 도로를어건축하가가 나온후에 건 축을 시키라고한다。

興亞奉公日에
無酒데이實施

【釜山】 북부산서관내에잇는 三 百여 요리업 또는 음식점에 흥아 봉공일(奉公日)에 무주(無酒) 일로 정하고 흥아봉공일의 의의 를 인식케하는 동시에 자숙의긴 장을 갓도록 전기조합원들하야부 주(無酒)의시행하게되엿다한다。

그러나 무주일에 [illegible] 출입을 [illegible] 금지 하여 단 국부대하에는 [illegible] 金泉邑面長會議
旱害對策協議

【金泉】 경북김천(金泉)군에서 는 지난二十九일 오전十시부터군 회의실에서 읍면장회의를 개최하 고 한해대책에대하야 다음四항목 을 협의하엿다한다。

一、苗代灌漑水路確保에關한件
二、麥의適期刈取督勵에關한件
三、以後旱魃에關한件
四、農村共同作業促進에關한件

定平怪殺人事件
犯人은尙未逮捕
被殺者는草原小校生

【咸興】 기보 정평군초원정 (定平郡草原町)부근에서 소학교에 다니는 소녀(少女)가 어떠한자 에게 참살되엿다함은 기보한바이 나와 그후 관할경찰서에 의하면 살해된것은 정평군 장원면신흥리(定 平郡長原面新興里)정문율(鄭文 律)의 오녀(五女)오만(五萬) (一三)이라고하는 초원소학교(草 原小學校)六학년생인데 지난二十 四일 아침학교에왓다가 방과후도 라오지안흐므로 집에식구들이 각 방면으로 찾으러 떠나는한편 경 찰에 신고하고잇엇든것인바 二十 六일 오후二시경 초원정으로부터 三정(町)가량되는 표항리(飄項 里)송림(松林)사이에서 부근 을 지나는사람에게 참사체가 발 견되엿다고한다。 이에 경찰당국에서는 즉시범인 의 수사방면을펴고 참사체를수용하 는동시 사체의 검증을하엿는데 사체는 예리한흉기로써 하복부 (下腹部)를 찔러 비여내여참이 불수없는형편인데 참사체의 얼에 는그가 끼고가든 책보의에걸을 뿐인가아시라나부『스리』이잇으 므로 어떠한 그러므로하야 범인 동포는 [illegible] 중이라지만 二十八일까지 아직체포되 지안엇다고한다。

俚里邑會議流産

【俚里】 전북이리읍(全北俚里)에 서는 금년도 읍세호별할부과(戶 別稅賦課定額)를 지난 二十二 일오전九시로 각 읍회원(邑 會員)에게 통지를발송하엿다 당일 전 十一시까지에 읍회원들의 출석 이 몰하엿스나 사정이 와서 는 드디여 유산이 되엇는데 그원인에 대 하야 여러가지의 복잡한 문제로써 읍 당국(邑當局)과 외원들 사이에 대립이 원만하엿는데 일반은 주시 중이라고한다。

□사・전들은 좀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대체 ...

歷史小說
朝陽虹 〔101〕
尹昇漢 作
盧壽鉉 畵

水面風 十一

이상의 귀에는 『대머리만 신』의 놀님이 그러할수이 들리 엇다。

『이래서 언제 가장 적당 할가?』

『다행히이나 그렇지면 여간장 시작구소리가 들린다 하드라도 빗기사람이 예사로 알듯싶은 니다』

대머리만신』은 장안 한바닥에 와가를 자랑하려는 욕심까지 렌 봇엇다。

『로 이번일에 재물은 얼마 한 가지면 싶겟는지?』

『그것은 정성에서 엿지올수잇 읍니다 정성을 정기한하고해 야할것이오나 반면 가장지 일에이 가람지 어떠게 주최을 할수잇잇겟니가』

『그러면 위선 삼천냥만 내보 낼것이니 이 살림을 곳 준비를 해가지고 일을 시작해야지?』

『나 지금하오다 소위는 목숨 걸 고하는일이오니 먼저 소위일은 자의목을 도읍는 기도를 벌엇다。 대머리무녀는 하루에도 우긋이 로 일을다고 한편에도 두긋이로 드나들면서 일을 보살폇다。 이리하야 이궁의외 주위에서는 그무녀가 다―란 정자산을 도읍는것으로하엿고 때로히 그러하엿는지 하는바 비밀을 아지못하고 조정 일은 연시 그무녀가 다방에 새 집을 작만하고 따로이 새왕자의 명복을 비는것은 이궁의 위치까지 대머리만신의 이재는 청렴주수 에 어십아가가를 작만하고 일 빈이고 십버이고 다달이수천원의 돈이 따로히 기도비용이라고나오 는것이엿다。 허허때를 들어 노릉 무녀는 차 해태한미는이 이러니게되엿다 그러로 에 안해한 여북장상된 그화장된사랑을 고로히 도려서 다면 기도하는 현실안 차려고 적정에 도 그리게 하고잇는데이엿외 의외 같이 정첩에 위엽부려노 코관 두텁으로 올마다니던치 도러리 하는터이엇다。 대머리무녀는 『최 고하는 일이오니 먼저 소위 뜻을 이

이상의 아에 그만곳 집중되엿다 붓 를엣라아 곤 시작 하게살나이 다』

『그러면 이번 곳 주선해주터 이니 얼마잡 거행하도록하지』

『이틀밤이오니가』

이상인은 만면희색으로 궁중 에 들어가서 이사연을 대감인 숙원이씨에게 말하고 다만 왕 자의 삶을 벗기고 복과망을 빈다는 명목으로 천여주수와 집 한채와 돈천냥을 주선 나 하야 부녀의집으로 술그머니 내 보냇다。

한끗 이궁의 힘으로 어떠케 이와 같은 그재물이 변통되엿는가가 의문이나 이것은 최성궁 이방안사람 내통해가지고 뱃뱃 부자들을 격서 물건을 간에에 선이 세자책봉이되고 왕위에 오 르게되면 그때에는 그가치열것 무릅에지고가는 재물과 벼슬을주 게된다는에이을 가지고 극비리에 되엿다。

이리하야 이궁이 대머리만신 에 엄마라도 재물을 풀어드리게 되여서 천여석하는 땅문서와 돈 이 되여서 천여석하는 땅문서와 돈 되여 사랑의 거실 나 의집을 대머리만신 이와 약간을 아라 기도는 그의 시정에 의하 무녀는 그이튼날로 새집에 옮신 하계 전재(錢財)차림을 가추게 되고 봉안(奉安)그집을 그대로 둔채 한편으로는 새집에 따로히 이궁 의 정성대로 새왕자를 겪고 선 의 비는 그석마 다한다。 전집에서는 선왕자를 겪고 새왕

『사』라는소경과 딘신(盲神)이 한 여북이엿엇고 무녀집에는거문 사라는사람과 팔자의 미전의이 라는사람이오 과장의 지방사는 소 이수에 이 있엇다 한신화하 소경들이 무당의 사랑이 되어 일하는 차수기가 각가이 된 이상이 다보 보여있엇다 그무당의 여집 에 대머리무녀는 부사질로 이와 기도서 드나들의 아니하면서 무녀를 사랑이 중이 안맞다는 사이 하이 그사랑에서는 무녀모두 에 대한 여러 집에서는 사발과 나가다는 사이 그러나 사랑에 아니하 엇다。 무여서는 혹시나 이사정에 서 나오고 무당집에서는 무당들 이 떠나는 날이 그리울것을 러엿고 이가같이 업하였고 적당이 나오 는 무리들 다―새물과 서로 싸으는 사람 에오는 일이 잇다。 그런데 엇던 이 이나라 이 거러하라고 하는 자로 받엿다 한다。 대머리만신이 무심코 현정에 잇는 그아이는 날로 나서 사감 떠나가려 이 자의적 수 이도 지곳감 사 그 장 하 는이나 서 누 기도는 우이어 일 재가 한 리의 부 고 엇 기도에 한 엇 이 엇다 삼엇다。 지 돕어 그기도에 곤 자장 을만 지기도 잠장하고 쎳의 다。 『나 저 몰 소리 에 쎗 고 잇다 이 에 서 다 소리 낫 다』